

### 13. 轉移性絨毛膜癌에 觀察된 甲狀腺機能 亢進症의 1例 報告

A Case of Metastatic Choriocarcinoma Associated with Hyperthyroidism

서울醫大 內科

李明哲 · 李權錫 · 高昌舜

서울醫大 產婦人科

姜淳範 · 金勝燮

營養胚葉(trophoblast)性 腫瘍에서 併發되는 甲狀腺機能亢進症은 매우 드문것이다. 1955年 Tisne 等이 最初로 胞狀奇胎患者에서 甲狀腺機能亢進症을 報告한 以來 胞狀奇胎 除去後 臨床症狀 및 甲狀腺機能檢査가 正常으로 轉換됨을 觀察되었다. 그후 1961年 Myer 에 依하여 絨毛膜癌患者에서 역시 甲狀腺機能亢進症을 報告하였고 또한 Steigbigel 은 辜丸의 胎生期癌에서도 甲狀腺機能亢進症을 發見하였다.

胞狀奇胎와 絨毛膜癌에서 同伴되는 甲狀腺機能亢進症의 原因으로서는 患者의 血清 또는 腫瘍組織에서 檢出되는 甲狀腺刺戟物質임이 證明되었는데 이는 作用時間 및 免學적으로 TSH, human chorionic thyrotrophin 또는 LATS' 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. 最近에 이러한 營養胚葉性甲狀腺刺戟ホルモン (trophoblastic thyrotropin)은 실제로 絨毛膜性腺刺戟ホルモン (human chorionic gonadotropin; hCG)이며 이들 患者에서 多量으로 hCG 가 增加될때 甲狀腺機能이 亢進됨이 밝혀졌다.

演者들은 最近에 서울醫大 附屬病院內科에 入院한 轉移性絨毛膜癌患者에서 甲狀腺機能檢査上 甲狀腺機能亢進症으로 確認된 一例을 經驗하였고 이 症例가 世界的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.

1) 患者는 29歲 女子로서 胸部不快感 및 咯血을 主訴로入院하였으며 過去歷上 1年前 胞狀奇胎를 앓은적이 있었다. 胸部X線上 兩側肺에 絨毛膜癌의 典型的인 肺轉移所見인 多發性 小結節樣 및 小葉狀의 腫瘍所見이 觀察되었으며, 尿中 hCG 가 全尿 및 50倍 稀釋時 陽性으로 나왔다.

2) 甲狀腺機能檢査上 甲狀腺沃素攝取率은 42.5%, T<sub>3</sub> resin 攝取率은 33%, T<sub>4</sub>值는 21μg/dl, T<sub>7</sub>值는 6.95, T<sub>3</sub> 放射免疫測定值는 318 ng/dl 및 TSH 는 1.6μU/ml 로서 뚜렷한 甲狀腺機能亢進症 所見을 보였으며 TRH

刺戟結果 陰性이었다.

3) 約 4個月後 肺轉移가 惡化되고 尿中 hCG 가 100倍 稀釋時에도 陽性으로 됨에 따라 甲狀腺機能도 더욱 亢進되어 T<sub>3</sub> resin 攝取率이 39.3%, 血中 T<sub>4</sub>值는 25 μg/dl, T<sub>7</sub>值는 9.75, T<sub>3</sub>值는 550 ng/dl 및 TSH 는 4.6μU/ml 이었다.

### 14. <sup>99m</sup>Tc-phytate 간스캔에서 나타난 담낭 섭취 현상

Gall Bladder Uptake in Liver Scan with <sup>99m</sup>Tc-phytate

가톨릭醫大 방사선과

朴龍輝 · 金春烈 · 任正益 · 姜時遠

교질金, 교질 <sup>99m</sup>Tc 또는 <sup>99m</sup>Tc-phytate 을 사용한 간 스캔에서는 이론적으로 담낭섭취(uptake)가 되지 않는다. 즉 교질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는 혈류를 따라 간에 도달되면 Kupffer 세포에 沒入되어 Kupffer 세포 안에서 마멸되어 없어지며 담관계통을 통해서 배설되지 않는다. 그러나 간의 Kupffer 세포의 기능이 나빠지거나 상실되면 간의세망내피계, 즉 비장이나 골수계통에 교질상태의 방사성물질이 담낭에 섭취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. 한편 Kupffer 세포에 沒入된 교질상태의 방사성 물질이 포만상태가 되면 세포밖으로 밀려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담관계로 배설된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. 그래서 연자들은 교질상태로 된 간스캔 제제의 투여용량, Kupffer 세포의 기능상실 정도와의 관계 및 담낭내에 세망내피세포의 존재여부 등에 관해서 앞으로 추구 해보고자 한다. 1976년 8월 27일에 시행한 5명의 간스캔 중 3예에서 담낭섭취 현상이 일어났으며 3예에 대한 병력과 임상 검사 소견은 다음과 같다.

<증례 1> 강○성, 38세된 남자로서 약 7일간의 고열, 두통, 복통 및 설사로 주스로 76년 8월 23일 외래를 통해 내과에 입원하였다. 입원당시 이학적 검사에서는 우측 상복부에 손가락 두께 정도(4m) 넓이로 간이 촉진되어 간의 종대를 의심케하는 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. 입원 2일째 실시한 간 기능검사에서는 SGOT 가 82 unit 로 약간 상승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는 모두 정상범위 였다. 간스캔소견을 보면 간이 약간 증대되어 있었으며 비만성의 간 "얼룩"이 있어 만성활동성간장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.

<증례 2> 박○규, 19세된 남자로서 약 5일간의 미열